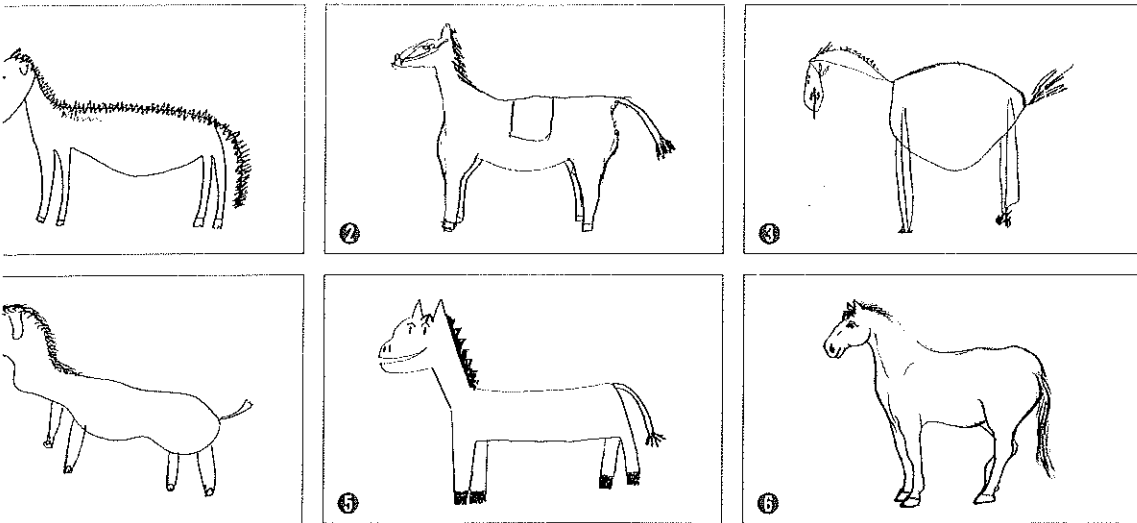


표현의 시작, 드로잉

이 단원을 통해

- 머릿속에 떠오른 발상을 간단한 재료로 자유롭게 시각화할 수 있다.
- 러프 스케치, 에스키스 등 다양한 방법과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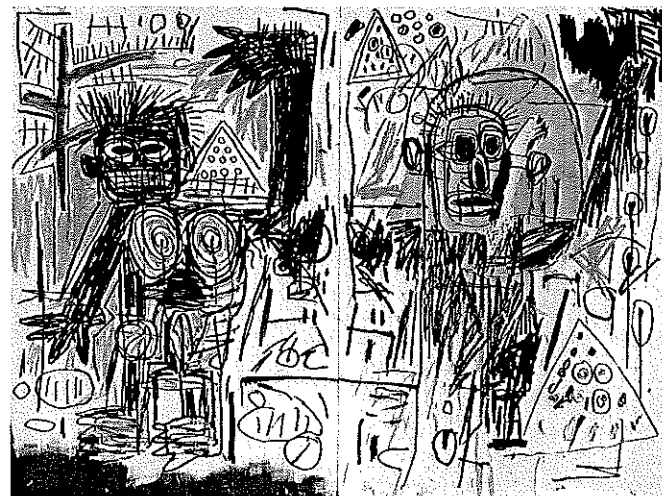
다음 중 피카소가 그린 말 그림은 어떤 것일까?



이해

끌어낸다(draw)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드로잉 상상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
답에 드로잉은 표현의 시작이며 회화, 조각, 건축
적인 작품 제작에 앞서 발상을 구체화하는 준비
도 한다.

리는 생각과 상상을 드러낼 때 사실적으로 표현
는 생각에 그리기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. 하지
| 그림처럼 조금 부족하더라도 표현해 보는 것이
린 그 이미지를 통해 또 다른 상상이 떠오를 수 있
: 자신감을 가지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표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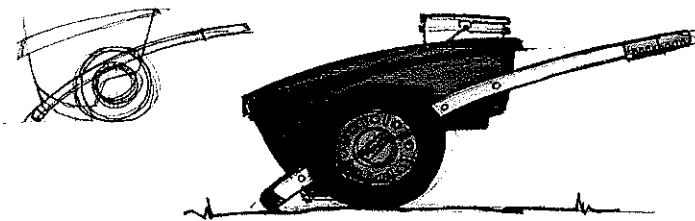
▲ 무제(테넬에 아크릴과 오일 스틱/182.8x244cm/1982),
바스키아(Basquiat, Jean-Michel/ 1960~1988/미국)
익서도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. 자유로운 해방감과
묘한 매력력을 느낄 수 있다.

드로잉의 종류와 기법

드로잉은 그리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, 크게
미술의 기초 연습을 위한 드로잉과 창조적인 드로잉으로
나눌 수 있다. 대체로 창조적인 드로잉은 개성적인 표현과
독립된 작품 완성을 목표로 한다.

러프 스케치는 떠오르는 생각을 낙서하듯 간략하게 그
리는 것인데, 작은 종이에 여러 장을 그리므로 섬네일 스케
치라 하기도 한다. 에스키스는 보통 회화 작품 제작을 위해
완성될 최종 작품을 예상할 수 있도록 미리 그려 보는 밑
그림을 말한다. 또한 제품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드
로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.

드로잉은 주로 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선의 굵기와 방향,
길이와 농도를 달리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사물의 특징을
잘 드러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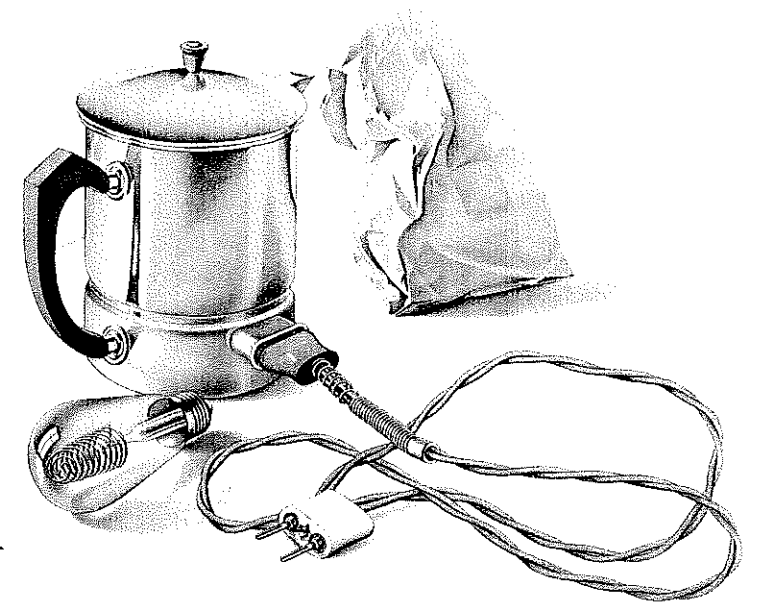


◆ 정원용 수레 제작을 위한 스케치

정원용 수레 제작에 앞서 간단한 아이디어 스케치와 마커를 사용한 좀 더
구체적인 제품 스케치 그림이다. 이처럼 드로잉을 통해 제품의 모양이 구체화된다.



◀ 자화상(종이에 먹/20cmx24cm),
유남석(학생 작품)
거울을 보고 그린 그림이다. 인경 속 눈
위치를 보면 습관적으로 그리지 않고
관찰하며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

◆ 전기 주전자(종이에 연필, 수채 57x68.5cm/193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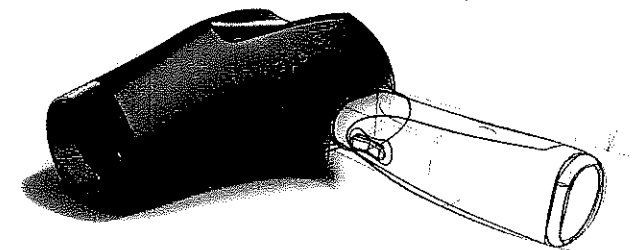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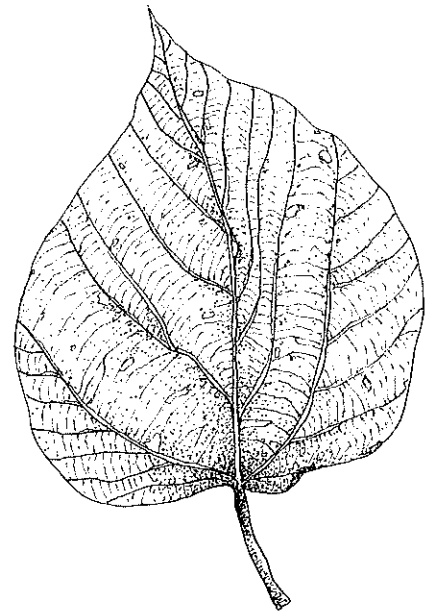
디싱게(Dischinger, Rudolf, 1904~1988/독일)

표면이 매끄러운 종이 위에 가는 연필을 이용해서 그린 다음 얇게 채색한 작품이다.
섬세한 표현 때문에 긴장감이 느껴진다.

▶ 예덕나뭇잎

(종이에 펜/20x14cm),
김하늘(학생 작품)

나뭇잎 하나를 세밀하게
관찰하며 펜으로 표현했다.
이런 드로잉을 할 때에는
천천히 관찰하고 아주 느리게
선을 그려 나가는 것이
중요하다.



◆ 헤어 드라이기를 위한 렌더링

간단한 스케치에서 사실적인 렌더링이 나올 수
있음을 보여 주는 그림이다. 렌더링은 주로
디자인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,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
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 주는 그림을 말한다.
렌더링을 참고로 실물처럼 모델링하기도 한다.

로잉 재료와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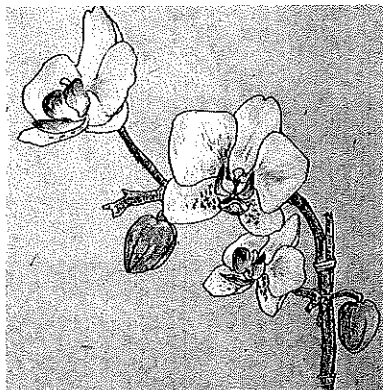
1장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목탄은 버드나무나 포도나무를 태워 만든 숯으로
:럽고 깊은 맛을 낼 수 있다. 콩테는 목탄보다 사용하기 쉽고 연필보다 농담
: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. 색연필은 유성과 수성으로 구분하는데, 다른 재료
적절히 함께 사용하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. 종이에 완전하게 밀착되지 않
드로잉 재료들은 작업이 끝나면 정착액을 뿌려 주어야 한다.



엄마와 아이(종이에 콩테/77.2cmx57.3cm/1953),
프란시아(De Francia, Peter/1921~2012/영국)
는 연필보다 풍부한 농담 표현이 가능하다. 작가는 거침없고 섬세한
:를 통해 당당하고 부드러운 엄마의 모습을 느끼게 하였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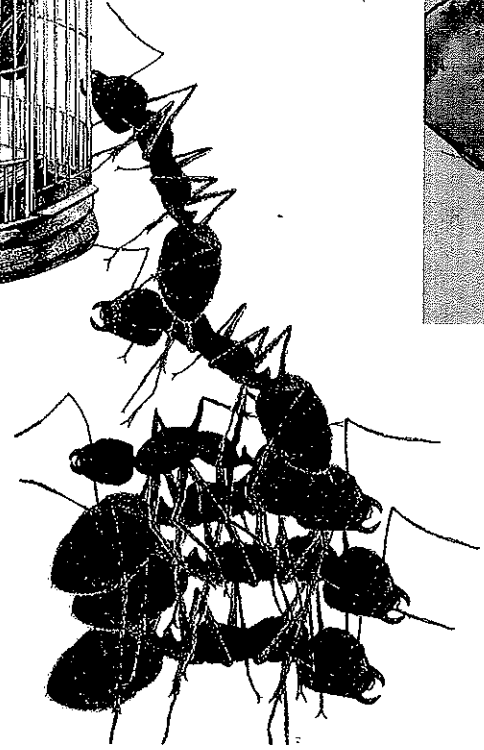
➔ 수탉
(목탄/76x55cm/1938),
피카소(Picasso, Pablo/
1881~1973 /에스파냐)
검은 목탄의 질감과 거친 선을
통해 표현된 사남고 활기 넘치는
수탉 그림은 색이 없어도
부족함이 없어 보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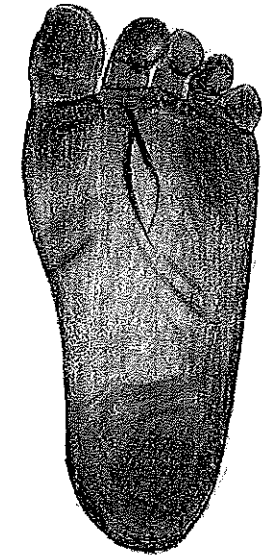
➔ 호접란
(종이에 펜, 색연필/
22cmx21cm),
이기문(학생 작품)
색연필이나 콩테를 사용할 때
색이 있는 종이를 이용하면
효과적일 때가 있다. 특히 흰색
꽃을 표현할 때 좋다.



➔ 옥망(종이에 혼합 재료
100x85cm/2008),
다발 김(1975~ /한국)
작가는 정교하게 그린 개미들
을 통해 있을 법한 판타지를
만들어 낸다. 그 모습은 우리
인간들의 한 모습일지도 모른
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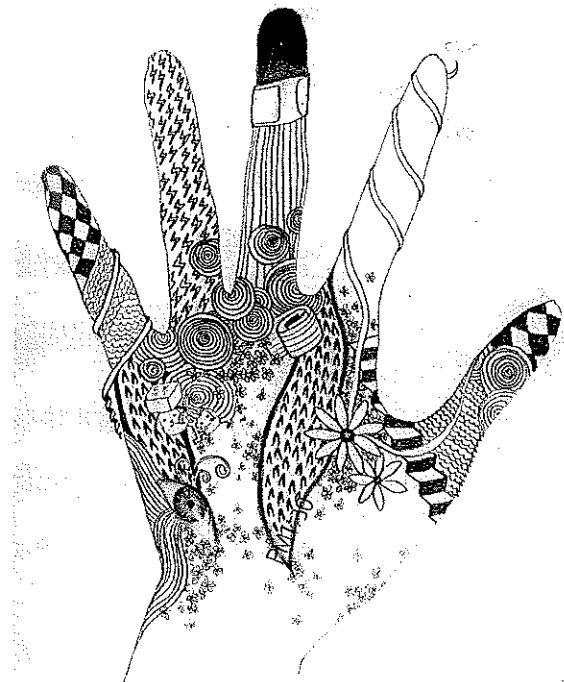
➔ 에바 친구(노니 갈루스의 초상화(종이에 수채, 크레용/
20.3x30.2cm/1910),
실레(Schiele, Egon/1890~1918/오스트리아)
밀그림을 그린 후 가볍게 수채 물감으로 채색을 더해선 완성된
생동감 넘치는 작품이다.



발바닥은, 연필로 그리는
있게 도와주고, 색연필
다만 개를 그려서 연필
되어 있어, 색깔도 있다.
연필과 색연필이
나를 건강하게
개를 할 수 있다.

◀ 발바닥
(종이에 연필, 색연필/24x18cm),
김도연(학생 작품)
자신의 몸 일부를 그리고 그 부분의
역할이나 관찰 내용을 적었다.
자신을 표현하는 작업의 사전 단계로
의미 있는 작업이다.

더! 생각해 보기
색채를 사용하지 않은 간단한 드로잉 작품이
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, 왜 그럴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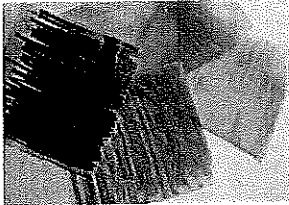


◀ 나의 손(종이에 색연필/29.5x21.5cm), 강민정(학생 작품)
젠탕글 기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였다. 젠탕글은 'Zen'(선과
'Tangle'(복잡하게 얽힌 선)의 합성어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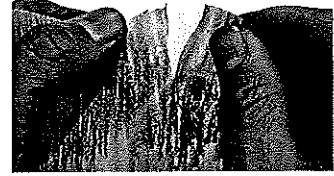
참|작|발|전|소

톤을 이용한 드로잉

선 대신 톤(음영) 위주로 드로잉을 해 보자. 신문의 사진에서 톤별로 조각들을
모아 콜라주 방법으로 사물을 표현할 수 있는데, 여기에서는 트레이싱 지에 연필
로 음영 조각을 만들어 콜라주 방식으로 커피포트를 표현했다. 사물을 톤으로
관찰하는 연습도 되고 선 드로잉과 다른 느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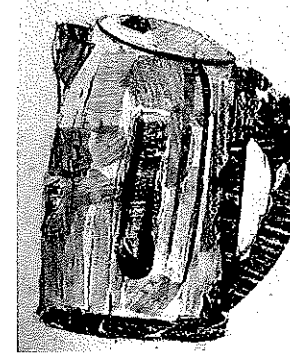
다양한 연필(2H~6B)로 음영 조각을
만든다.



손으로 뜯거나 가위로 오려 톤을
관찰해 가며 붙인다.



대상을 음영 위주로 관찰하며
트레이싱 지를 오려 붙인다.



겹쳐진 트레이싱 지로 인해 독특한
질감이 느껴지는 커피포트가 되었다.